

## 미로슬라브 볼프의 성령론적 노동관과 문화명령

김 욱 성공회대 일반대학원 신학과 박사과정

### 서론

2022년 10월 15일 새벽 6시 15분 경기 평택의 에스피씨(SPC) 빵공장에서 20대 여성노동자가 반죽기계에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SPC 끼임사’ 사고가 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계에 끼인 노동자를 발견한 시간부터 119 신고 사이에 10분의 지체가 있었다. 119신고가 10분이나 늦어진 직장대처는 회사측이 공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119에 신고하는 것을 금기시하였기 때문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박태우, “SPC 끼임사’ 119신고까지 10분 지체…직장대처 정황”, 《한겨레신문》 2022년 10월 19일자). 사망한 노동자는 밤샘근무를 하다 사고를 당했으며, 사고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2인1조 근무지침이 있지만, 같은 회사의 노동자들은 2인1조 근무지침이 지켜진 적이 거의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 결과 사망노동자는 이미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들어가 사망하는 참담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안전장치 설치는 9대 중 2대에만 이루어졌다고 한다. 더욱 참담한 것은 회사측이 동료노동자의 시신을 수습한 노동자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했지만, 다음날 바로 출근시켜 동료가 사망한 기계 바로 옆에서 다시 노동하게 했다는 점이다. 119신고 금기시, 안전장치 미비, 근무지침 미준수 등 회사측의 이와 같은 대처들은 비윤리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파리바게뜨, 삼립, 샤니 등 SPC 계열사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SPC 끼임사’ 사고는 한국의 노동문제와 관련, 이윤추구의 비인간성이라는 주제의 한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는 2022년의 한국사회에서 노동이라는 주제가 갖는 여전히 시의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분업을 특징으로 하는 생산과정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결과물과의 관계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임금과 노동이 맞교환되는 임노동 체제에서 자본이 노동자를 이윤

의 추구수단으로 사용하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이 사례는 분업과 소외, 임노동의 문제를 다루는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의 노동관에 대한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의 신학적 탐구를 돋보이게 한다. 볼프의 성령론적 노동관은 이와 같은 탐구를 거쳐 구성된 것이다.

한편 2022년 10월 8일 아무런 설명없이 ‘생태전환교육’과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 항목이 삭제되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축소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교육과정에는 명시되어 있던 항목들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아무런 설명없이 삭제되거나 축소되었고, 의견수렴을 통해 복원요구가 진보성향 교육·노동 단체들에 의해 제기되었음에도 전혀 복원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김태훈, “생태전환 ‘노동’ 빠진 새 교육과정 총론 공청회…폭력에 욱설 남무 ‘아수라장’”, 《경향신문》 2022년 10월 9일자). 더욱 참담한 것은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 시안을 놓고 한국교원대에서 연 공청회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최서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언을 하자, 연단으로 난입하여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새 교육과정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논쟁은 2022년 한국사회에서 노동이라는 주제가 갖는 여전한 시의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국가교육과정에서 가르치는 것과 관련한 이 사례는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 교육에게도 기독교적 노동관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연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일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은 우리 시대에 적합한 기독교적 노동관이라고 할 만한 것이 기독교 신학과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교육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도록 촉구하는 시대의 표징일 수 있다. 볼프는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에서 나고 자라서 마르크스주의를 강요받으며,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하고, 이념대결과 체제경쟁으로 갈라진 독일에 서 신학을 수학하며, 현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 신학작업을 하는 독특한 이력을 배경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의 공정한 대화를 촉구하면서, 기존의 기독교적 노동관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의 성령론적 노동관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주목할 점은 새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노동’ 항목과 함께 삭제된 ‘생태전환교육’ 항목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의 ‘교육 2030’ 보고서와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2050’ 보고서 등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첨가된 부분이라는 점이다. 피부로 실감되고 있는 생물생존에 극단적으로 적대적인 기후위기는 ‘인류세’라는 개념을 널리 유포시키고 있다. ‘인류세’라는 개념은 자연에 가해진 인간의 기술과 노동이 가져온 변화가 현재 지구의 지질학적 시대구분을 특징짓고 있음을 강조한다. 기온상승과 생물종의 대멸종, 해수면의 상승과 플라스틱섬으로 대표되는 환경오염 등 지구 생태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위기는 기술의 발전을 매개로 인간의 노동이

자연-생태계에 가해져 일어난 것이다. 결국 기후위기의 가장 개연성있는 원인 중 하나는 인간의 노동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 노동과 생태전환 항목이 삭제되고, 이에 따라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노동이라는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논란은 2022년 한국사회에서 노동이라는 주제가 기후위기와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여전한 시의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태위기와 환경파괴는 오늘날 기술이 인간과 동료 창조 세계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을 보여준다. 기술의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직업군들에 거대한 변화를 촉구하며, 이것은 일부 학자들과 운동가들에게 ‘노동의 종말’이라고도 불리는 변화를 포함한다. 동시에 기술은 생태계에 거대한 파괴적 영향을 일으키며, 대규모 생물종의 멸종을 가져오고 있다. 기술의 발전을 필수적인 토대로 하는 문화적 발전에 대해 기독교 신학과 기독교세계관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며, 기술이 가져오는 노동의 변화를 맞는 그리스도인의 생활방식으로서의 제자도는 어떻게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 기술의 발달이 제기하는 현대의 변화에 응답하는 기독교적 노동관이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동료 생물종들 뿐 아니라 동료 인간들의 죽음으로도 표현되는 현대사회의 노동문제는 갖는 이와 같은 시의성들은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 신학에 성실한 응답의 책임을 부과한다. 현재 사회에 대한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 신학의 성실한 응답과정에는 그간의 기독교적 노동이해들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며, 볼프는 성령론적 일의 신학을 개진하는 가운데, 기존의 기독교적 노동이해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기존의 기독교적 노동이해와 관련한 기독교 신학의 주제는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 등 종교개혁자들의 ‘직업소명설’이며, 기독교세계관의 주제는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이라고 본다. 직업소명설과 문화명령이라는 주제들이 그 자체로 일/노동에 관한 규명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를 두고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일, 노동, 직업으로 번역되는 ‘워크’(work)에 대한 논의를 필연적으로 전제하거나 노동이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제임이 분명하다. 볼프가 제안하는 성령론적 일의 신학, 혹은 성령론적 일 이해(pneumatological understanding of work)는 새로운 노동이해를 함축한다고 보고, 볼프의 성령론적 일 이해 안에 담겨있는 노동이해를 성령론적 노동관이라고 명명해보고자 한다.

## 본론1: 직업소명과 문화명령

기독교적 노동관의 역사는 성경과 노동에 대한 교부모신학과 그 신학을 계승한 중세시대의 노동관, 그리고 종교개혁 이래 종교개혁자들의 노동관, 그리고 근현대의 로마 가톨릭의 사회교리 등으로 대별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히브리성경-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이래로 인간노동에 대한 비교적 풍부한 진술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스도인성경-신약성경에서 일이란 그리스도

의 구속사역과 그리스도인의 복음사역을 가리키는데 집중되어 있다. 비종교적이고 일상적인 노동을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에 비하여 부차적으로 다룬다는 사실을 볼프는 지적한다. “기독교적 일의 신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 근거 자료인 신약성경은 인간의 일이라는 주제를 가끔씩만, 그것도 부차적으로만 다룬다(『일과 성령』, 126).” 신약성경의 일에 관한 구절들은 일의 신학을 구성하기에는 부족하며, 차라리 구약성경의 구절들이 일의 신학을 위한 몇가지 요소를 제공한다고 볼프는 논평한다(『일과 성령』, 127).

초기 교부모들은 희랍철학으로부터 물려받은 비아 악티바(via activa)와 비아 콘템플라티바(via contemplativa)라는 구도에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여 노동을 이해했다. 교부모들은 희랍철학과 달리 노동을 수치스럽거나 천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근면을 가르치며,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기 위한 수익을 얻기 위하여 노동하라고 가르쳤다. 동시에 교부모들은 노동을 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여겨 노동이 성품에 미치는 형성적 능력에 주목했다. 즉 노동은 악한 육체를 복종시키는 수단이며, 노동을 통해 겸손을 수련하고, 정욕을 가라앉히는 영성적 훈련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잘 알려진 베네딕토의 『수도규칙』의 문구인 “기도하며 일하라”(Orare et Labora)는 이와 같은 교부모들의 노동관을 대변한다.

기독교 노동관의 역사에서 교부모시대와 중세시대를 관통하는 비타 콘템플라티바에의 비타 악티바의 종속을 교정한 것은 종교개혁이었다. 종교개혁의 노동관은 루터와 칼뱅의 창조와 소명이해에 기반한 직업소명설로 대표되며, 루터와 칼뱅의 창조와 소명이해는 화란 칼뱅주의 전통의 후계자들에게서 일반은총 교리의 논의와 더불어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이라는 기독교세계관의 중요 주제로 발전되었다. 문화명령은 로마 가톨릭의 사회교리에 비견되는 칼뱅주의-개혁파 전통의 기독교 사회론의 주요한 토대가 되는 개념이다. 직업소명설과 문화명령은 각각 개신교 신학과 개신교 세계관에서 기독교 노동관을 담고 있으며, 둘 다 루터와 칼뱅의 창조와 소명이해에서 기원한다. 동시에 종교개혁에서 기원한 노동관 즉 직업소명설과 문화명령은 계몽주의 이래의 서구사상 특히 근대주의, 자본주의의 발흥과 교감하면서 변천해간다. 볼프는 성령론적 일의 신학이라는 새로운 기독교 노동관을 제시하면서 개신교의 우세한 노동관인 루터와 칼뱅의 직업소명설을 비판하고 극복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볼프의 성령론적 노동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루터와 칼뱅의 직업소명설을 기초적 대화상대자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루터가 직업소명설을 주창하게 된 배경에는 중세교회의 이층윤리와 수도서원이 일으킨 소명의 수도원적 왜곡이 있었다. 중세 가톨릭교회는 평신도와 수도자들 사이에 각기 다른 기독교 윤리가 적용되며,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는 관상적 삶(비아 콘템플라티바)는 수도자들의 몫이며, 따라서

완전/완덕(perfection)은 수도자들에게 해당되는 덕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기독교 윤리를 이층으로 구성하게 되면서, 소명(vocatio)은 오직 수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오스 기니스는 이와 같은 소명관을 ‘소명의 수도원적 왜곡’이라고 부른다(『소명』, ) 수도원적 삶으로 소명을 축소하는 것에 대한 루터의 비판과 모든 그리스도인을 소명의 대상으로 위치시키는 소명의 보편화에 관한 가르침은 『대교리문답』 73-74항에서 살펴볼 수 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습관이 생기도록 힘쓰십시오...이런 이유로 우리는 식사 전후로 감사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을 맞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습관이 됩니다...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습관을 수도원 생활이나 카르투시오 은둔수도자의 거룩한 생활보다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대교리문답』, 84~85).

루터는 이와 같은 특정한 종교적 삶으로 축소된 소명관을 비판한다. 루터에게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을 받았으며, 이 소명은 영적 소명과 외적 소명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영적 소명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부르심이며, 외적 소명은 세계 안에서 자신이 서있는 자리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는 부르심이다. 볼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중적 소명이라는 루터의 소명관을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에 기초해 있음을 지적한다(『일과 성령』, 170). 임성근은 루터의 노동영성은 이신칭의의 열매라고 말한다(『루터의 노동영성』, 13)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리인 이신칭의는 나의 구원을 넘어서서 나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한 값없는 봉사로 이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루터에게 있어 노동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도구인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값없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육과 육의 사역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도와주어야 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동일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이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그리스도인의 자유』, 107).

이중소명 중 노동이해와 관련해서는 외적 소명이 중요한데, 이 때 서있는 자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자리라는 이해는 루터의 고린도전서 7:20에 대한 해석 위에 기초한다. 루터에게 직업이나 지위, 역할은 이제 소명의 대상이 된 것이며, 여기에서 직업소명설이라는 노동관이 나오게 된다. 루터는 『대교리문답』 47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각자의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것들의 주인이 되어

지배하거나, 맡겨진 것들을 이상삼지 마십시오(『대교리문답』, 72).” 손규태 또한 루터의 경제운리를 논하면서 『대교리문답』 중 십계명 부분을 고찰한다. 손규태는 가난한 이가 아닌 부유한 이들에게 우정과 호의를 얻기 위한 선물을 나누는 것을 잘못된 경제생활의 행태로 지적하는 루터의 지적을 소개한다.

사람들이 물건들을 친구들이나 그것들이 불필요한 부유하고 강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호의, 보상 혹은 우정을 획득하거나 그들에 의해서 좋고 정직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으면, 그들은 대담하게 나아가고 사람들의 칭송과 영예와 호의와 보상에 만족하게 된다(『마르틴 루터의 신학사상과 윤리』, 252).

루터의 소명이해에 의해 그리스도인의 일상적 일은 노동을 포함하여 신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되며, 종교적이며 교회적인 일 외에도 모든 직업이 부르심에 해당하게 되는 일이다. 막스 베버가 잘 지적했듯이 루터에 의해 직업을 통한 노동이 “개인의 윤리적 활동의 가장 고차원적 형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루터 노동관의 기초가 되는 루터의 창조이해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한복음서 5:17)를 주해한 대목에서 잘 드러난다. 인간의 직업적, 일상적 노동이 의미와 정당성, 거룩함을 얻게되는 루터의 노동관이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해에서 비롯됨을 추론하게 한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말씀에 의해서 온갖 피조물을 창조하기 시작하셨고 또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그것들을 언제까지나 유지하십니다. 그만 두자고 생각할 때까지 창조의 일은 유지됩니다...주님이 끊임없이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태양도 하늘에 머물지 않아 빛을 잃게 됩니다. 아이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씨앗도 풀도 자라지 않습니다. 영원히 일하시는 창조주와 함께 일해 주시는 성자와 성령이 손을 떼시면 모든 것은 순식간에 멸망하고 맙니다(『그리스도인의 자유』, 59).

인간의 소명을 복권시킨 것은 루터였고, 그 배경에는 이신칭의, 자애로우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지위라는 루터의 신학적 강조점이 창조와 소명에 대한 루터의 이해 안에 놓여있다고 한다면, 루터에 의해 복권된 소명이해를 끝까지 밀어붙인 것은 칼빈이었다. 칼빈의 소명관에는 창조와 소명에 관한 이해와 더불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칼빈의 신학적 강조점이 작용하고 있었다. 송인규는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비록 인간의 자연적

소명을 명예스러운 위치로 복권시킨 것은 루터였지만, 이 원리를 끝까지 밀고 나간 것은 칼빈이었다(『일반은총과 문화적 산물』, 138). 송인규는 헤르만 바빙크가 칼빈의 소명관에 두 측면이 있다고 분석한 것을 소개한다. 바빙크에 따르면, 칼빈은 소명에는 동등성과 차별성의 양 측면이 있다고 보았는데, 동등성이란 세상의 가장 천한 노동까지도 하나님의 소명을 성취한다는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하나님과의 동역이 된다는 내용이다. 차별성이란 교회와 국가, 가족과 사회, 농업과 상업, 예술과 학문 등은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로서 각각이 고유한 특성을 보유한다는 내용이다(『일반은총과 문화적 산물』, 139). 루터의 직업소명설이 칼뱅에게서 어떻게 계승되고, 변주되는지를 보게하는 대목이다.

칼뱅의 노동관은 일반은총과 일반은총에서 비롯되는 문화명령과 맞물려 구성되는데, 이것은 칼뱅의 『창세기 주석』 중 가인 후손의 문화적 성취에 대한 부분에서 드러난다.

비록 가인의 후손들에게 중생의 영이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알잡아 볼 수 없는 종류의 은사를 부여받았다. 이는 모든 시대의 경험이 가르쳐 주듯 이생의 유익을 위하여 불신 민족들에게도 얼마나 하나님의 광선이 드넓게 비쳤는가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인류 전체에 성령의 탁월한 은사들이 퍼져 있는 것을 안다. 게다가 교양 과목과 학문 분야들은 이교도들로부터 우리에게 전수된 것이다. 실로 우리는 천문학, 다른 철학 분야들, 의학 및 시민 정부의 질서 등을 그들로부터 받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일반은총과 문화적 산물』, 76).

화란 개혁교회 전통에서 칼뱅의 일반은총과 직업소명설 그리고 창조에 대한 이해를 계승하면서 확장시킨 것은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였다. 카이퍼는 문화는 문화와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된 일반은총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에서 나온다고 보았고, 인간의 문화적 활동이란 하나님의 영원전 예정 안에 있던 것으로, 또 마지막 심판후에도 계승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카이퍼의 문화명령에 대한 이해에는 창조에 관한 이해 뿐 아니라 개혁파 세계관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요한계시록 21:24에 대한 해석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즉 문화적 산물의 천국보존에 관한 신앙이다. 카이퍼가 1차 세계대전 이전 유럽문명에 낭만주의와 이상주의의 영향 아래 있었다면, 스킨더는 세계대전의 참화를 경험하면서 일반은총에 근거한 문화명령이란 카이퍼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신 스킨더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문화명령에 대한 순종으로서의 문화적 활동을 주장했다. 일반은총 교리가 없는 문화명령을 논의하는 스킨더는 ‘문화명령’이라는 용어의 첫 사용자로 간주되는 신학자다(『일반은총과 문화적 산물』, 163).

루터나 칼뱅의 직업소명설에서는 노동관이 뚜렷하게 보인다. 그렇다면 화란 개혁교회 전통과

북미로 이민한 화란 개혁신교회의 후예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기독교세계관의 문화명령과 노동의 관계는 어떤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문화명령은 화란의 칼뱅주의 전통에서 발전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칼뱅의 일반은총에 대한 맹아적 진술과 일반은총에서 비롯되는 문화의 발전 개념과 더불어 칼뱅의 소명관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일반은총이라는 칼뱅주의의 교리적 강조점이 더해졌지만, 칼뱅의 소명관은 기본적으로 루터의 소명관을 계승하고 심화시킨 것이다. 칼뱅의 소명관은 루터의 소명관과 같이 창조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면서,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직업노동을 소명으로 해석한다. 둘째, 송인규에 따르면, 문화란 자연에 인간의 힘을 가해 얻은 결과의 총화이다(『새로 쓴 기독교, 세계, 관』, 37, 47, 83). 자연에 인간의 힘을 가하는 행위가 일/노동이다. 그러므로 문화명령이란 개념에는 노동관이 연계되게 된다. 루터에서 시작하여 칼뱅에게서 새롭게 해석되고 화란 개혁신교 전통에서 발전한 이상의 논의들은 기독교세계관의 문화명령 논의를 구성하는 주요 원천이다.

## 본론2: 미로슬라브 볼프의 성령론적 노동관

루터의 직업소명설로 대표되는 개신교 노동윤리에 대하여 도로테 질레(Dorothee Solle)는 다음과 같이 혹독하게 논평한다.

종교개혁에서 노동은 예배로 해석되었으며, 부지런한 노동자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 여겨졌다. 직업은 소명이며, 자존심의 근거가 되었다. 인간은 직업으로서의 노동에서 새로운 자기동일성을 찾았다. 어떠한 노동인지, 그리고 노동의 목적이 무엇인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부지런히, 열심히 노동하는 것 자체가 덕이 되었다. 종교개혁의 종교성은 고된 현혈을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었다. 틀에 박힌 무의미한 노동이 '소명'이라 불리게 되었고, 착취적인 노동 상황이 '하나님이 당신을 세운 자리'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얻었다. 이러한 과분한 용어는 이후 불신을 받았다(『사랑과 노동』, 116~117).

질레는 루터에게서 기원하는 개신교 노동관이 새로운 국가적, 사회적, 시민적 조망을 가져온 기여를 인정한다. 질레는 공공복지와 개인이 공동체적 후원을 받을 권리 등을 사례로 꼽는다. 루터가 노동을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봉사의 방편으로 위치시키고, 약자를 고리대와 같은 자본의 비인간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통치자의 소임으로 명시한 것 등은 루터교가 지배적인 국가들에서 사회복지가 번성하는 기초가 되었다. 북유럽 루터교국가들의 복지국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기저에는 루터와 루터교 전통이 발전시킨 직업소명설과 밀접하게 연계된 기독교 사회주의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북유럽 도서관과 복지국가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윤송현은 북유럽의 복지국가화와 공공도서관 운동



사이의 관계를 논의하면서 루터교를 그 뿌리로 언급한다.

그러나 문제는 자본주의 경제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상품으로 팔고 임금을 받는 임금노동의 형식을 가지면서, 노동의 유일한 의미가 임금, 이윤, 소득으로 극단적으로 제한되게 되었다는 데에 있었다. 임금노동만을 노동으로 여기게 되면서 노동은 오로지 유급노동만을 의미하게 되었고,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한 노동의 결과물에서 기쁨이나 만족,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소외는 분업이 지배적인 생산형식이 되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는 모두 분업과 분업에서 비롯되는 소외를 심도있게 취급하며 다른 해법을 제시한다. 볼프는 성령론적 노동관을 구성하면서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소외 논의를 자세하게 소개한다(『일과 성령』, 83~112). 노동의 인간파괴적 경향을 지적하는 소외 문제에 있어서 직업소명설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사랑과 기업주에의 복종으로 치환시키는 방식으로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게 된다(『사랑과 노동』, 118). 직업소명설은 부르주아적 계급편향성을 지닌 것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해 더 이상 의미를 주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태는 루터의 농노반란에 대한 입장에서도 이미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의 의미에서 창의성과 공공의 행복에의 기여, 자아발전 등이 완전히 제거되고, 오직 임금을 통한 경제적 소득의 취득만으로 규정되는 세속화과정에서 많은 강도 높은 억압과 착취, 비인간화와 소외 등이 벌어졌지만, 직업소명설은 이에 대하여 실효적인 비판적 대응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직업소명설로 대표되는 개신교 노동관에 대한 비평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에 기초한 기독교세계관의 문화명령이 내포하는 노동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질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유는 공장 문 앞에서 멈춘다. 자유주의는 정부 형태로서의 독재를 혐오하지만, 신자유주의는 노동 현장에서의 독재를 묵인한다(『사랑과 노동』, 134).” 윤석열 정부 하에서 대통령 연설문마다 자유가 수십 번씩 언급되지만, 이 자유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번 ‘SPC 빵공장 노동자 끼임사’ 사고는 묻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창조세계의 생명들이 번성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향하는 자유만이 기독교적 의미에서 진정한 자유일 수 있다. 볼프는 소외와 실업 등을 포함한 일의 위기를 고찰하면서 성령론적 노동관을 제안한다.

민중신학자 양권석은 노동의 위기 시대에 새로운 노동관의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업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노동의 종말을 노골적으로 선언하는 이 시대가 오히려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노동의 종말과 미래 사이에 도사린 한 집착”, 10).” 양권석은 문제의 원인으로 돈벌이가 노동의 목적이 되는 임금노동과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노동윤리 등을 거론한 뒤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노동이 그 허무와 소외를 극복하고 노동자 자신의 삶을 위한 진정한 기쁨의 성취가 되는 노동,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나눔의 관계 속으로의 참여를 통해서 실현될 것이라고 믿기에 모든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노동으로 노동의 진정한 회복을 위한 관계론적 투쟁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노동의 종말과 미래 사이에 도사린 한 집착”, 11).

양권석은 민중신학적 노동관을 제안하면서 관계론적 노동관을 주장한다. 하나님의 창조는 관계의 나눔 속에 참여하려는 하나님의 욕구의 표현이며, 이에 근거하여 분업이라는 노동형식과 임금이라는 노동목표가 가지는 극단적 개인주의적 자기중심성을 극복하자는 것이 그 내용이다. 양권석이 돈벌이, 몸팔이라고 표현하는 임금노동 체제 안에서 노동자는 필연적으로 상호적대적이고 경쟁적이 되며, 이것을 상호파괴적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고 양권석은 지적한다. 관계론적 강조점을 특징으로 하는 양권석의 민중신학적 노동관 제안에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그가 이를 위한 성경적 근거로서 창조론과 더불어 성령론적이고 은사론적인 성경본문들을 예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창조이야기와 함께 사도 바울로의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선물에 관한 이야기와 13장의 사랑의 송가를 노동의 신학을 위한 중요한 전거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노동의 종말과 미래 사이에 도사린 한 집착”, 19, 강조는 필자)”** 철학적 신학과 관련하여 관계론에 대한 양권석의 관점에서 나온 통찰로 사료되는 이 대목에서 은사를 노동의 신학을 위한 근거로 꼽은 점은 볼프가 제안하는 성령론적 일의 신학과 병행된다. 은사와 사랑이라는 주제는 바울신학의 종말론-성령론적 구도 안에서 논의되는 것들이며, 이와 같은 주제들을 노동관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은 논의가 종말론적이고 성령론적인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의 삶에 천착하려는 신학적 지향을 표방해온 한국의 민중신학 일각에서 제안하는 노동관과 정치신학을 전개했던 몰트만의 제자 볼프가 제안하는 노동관 사이에 병행점이 존재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송인규는 한국교회는 한국상황에 맞는 기독교세계관을 탐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기독교세계관 운동이 한국에서 생성, 산출된 신학전통인 민중신학을 어떤 입장에서든지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볼프는 현재 일의 위기에 대한 개신교 노동관의 한계를 마주하면서 성령론적 일의 신학을 구성했다. 나는 볼프의 성령론적 일의 신학 안에 담긴 노동이해를 성령론적 노동관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볼프는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체제였던 구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신학자로서 성령과 은사에 관해 강하게 강조하는 오순절 교단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다. 오순절 신학의 배경에서 시작된 볼프의 신학적 여정은 복음주의 신학을 거쳐 튀빙겐 대학교에서 위르겐 몰트만 교수에게 칼

마르크스의 노동관에 대한 신학적 평가를 주제로 박사논문을 지도받는 에큐메니칼 신학에까지 이르게 된다. 성령론과 은사에 관한 체험적 오순절 신학은 볼프 안에서 몰트만의 종말론적 삼위일체론에서 도출되는 삼위일체론적 성령론과 만나 새 창조라는 종말론적 주제로 칼 마르크스의 노동관과 비판적 대화를 하면서, 성령론적 노동관을 형성하게 된다. 볼프의 성령론적 노동관은 종말론으로 특징지어지는 성령론을 기초로 '일의 신학'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으로서,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자본주의적 노동관과 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공산주의적 노동관 그리고 마르틴 루터와 존 칼뱅의 기독교적 노동관인 직업소명설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볼프가 성령과 은사, 종말론과 새 창조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령론적 노동관을 구성하면서, 소명과 창조론에 근거한 루터와 칼뱅의 직업소명설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의 노동관을 대체하려는 시도는 기독교세계관운동의 문화명령에도 도전을 준다. 문화명령은 창세기 1:26~28이나 요한계시록 21:24~26의 해석, 일반은총, 문화의 종말론적 연속성 등의 주제와 종교개혁자들의 직업소명설과 긴밀하게 연결된 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볼프의 성령론적 노동관이 개신교의 전통적 노동관인 직업소명설을 비판하며 극복하려는 시도는 기독교세계관의 전통적 주제 중 하나인 문화명령에도 응답과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볼프는 다음의 4가지 면에서 루터의 직업소명설을 비판한다. 그리스도인의 신원은 본질적으로 종말론적 실존인데, 창조교리의 시초론적 틀에서 구성된 직업소명설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종말론적 정체성을 간과한다. 새 창조는 단순히 처음 창조의 회복이 아닌데 직업소명설은 창조교리의 시초론에서 머문다. 현대의 일이 지니는 유동성과 가변성에 보전과 영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직업소명설은 조화되기 어렵다. 직업소명설은 소외와 환경파괴라는 노동의 병리현상을 다루지 않고, 기존체제의 정당화와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오용되기 쉽다. 볼프는 부르심과 소명이라는 주제로 일과 노동을 설명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7:20에 대한 루터의 틀린 해석에 기인한 것이며, 대신에 은사라는 주제가 일의 신학을 구성하는데 적합한 성경적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볼프는 종교개혁자들의 직업소명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3가지 면에서 종교개혁자들의 노동관과 다른 노동관을 새로이 구성하려고 한다. 첫째는 시초론(protoology)적 기능을 하는 창조론에서 종말론으로 노동관의 신학적 기초를 이동한다. 둘째는 창조론을 배경으로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노동이해가 다분히 성부중심적 성격을 띠다면, 오순절 교단 출신이며, 삼위일체론적 성령론을 기초한 생명 논의를 강조하는 몰트만의 제자인 볼프는 성령론에 기초한 노동관을 구성한다. 셋째로 종교개혁자들의 직업소명설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개신교 노동윤리가 소명을 노동관의 중심 주제로 삼았다면, 볼프의 성령론적 노동관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사를 노동관의 중심 주제로

배치한다.

볼프는 성령론적 일의 신학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제윤리원칙을 도출한다. 개인의 자유, 모든 사람의 기본적 필요의 충족, 회복불가능한 손상으로부터 자연의 보호가 그것이다(『일과 성령』, 45, 49, 52, 306). 볼프의 논리를 따르면, 개인의 자유라는 원칙에서는 시장의 필수적 존재가 도출되며, 모든 사람의 기본적 필요의 충족이라는 원칙에서는 민주적인 계획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 본론3: 볼프의 성령론적 노동관이 문화명령에 주는 4가지 함의

나는 이와 같은 직업소명설에 대한 볼프의 비판과 새 창조와 선행적 경험, 완성될 종말의 현재적 경험을 이루시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은사로 해석되는 볼프의 성령론적 노동관은 문화명령에 다음의 4가지 면에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첫째, 창조-타락-구속으로 구성되는 기독교세계관 안에서 문화명령이 논의될 때, 문화명령은 종말론과 관련하여 문화의 연속성과 더불어 구속과 완성을 이루시는 종말론의 주체이신 성령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직업소명설의 핵심개념인 부르심과 소명은 직업이나 일이 아니라 회심과 그리스도인다운 자질과 연결된다는 볼프의 지적은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이 그리스도를 닮음 즉 거룩함을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부르심의 보편성을 말하고자 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소명론은 거룩함으로의 보편적 소명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셋째, 문화명령은 기존체제의 정당화와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변혁과 식별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문화명령은 인간만의 작용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함께 협업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구원의 물질성과 총체적 구원을 설명하면서, 피조세계의 보호를 위해 확장되어야 한다.

### 결론

미로슬라브 볼프의 성령론적 노동관과 기독교세계관의 문화명령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업은 루터와 칼뱅이 성경의 수위성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전통적인 교부모와 중세교회의 노동관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새롭게 부각시킨 노동의 의미들을 계승하면서도 전통적 개신교 노동관의 순진성과 과오를 인정하고 오늘날의 노동현실에 보다 책임적으로 응답하는 새로운 기독교 노동관을 구성하고, 그 성과를 다시 기독교세계관에 반영하려는 관심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정욕과 악덕을 억누르는 성화의 도구로, 관상적 삶(비아 콘템플라티바)에 종속되는 활동적 삶(비아 악티바)이라는 구도 안에서 노동을 조망하던 교부모와 중세 기독교의 노동관에 대해 종교개혁자

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절대주권,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발원하는 문화적 발전능력,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에 기초하는 기쁨어린 창조,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이웃에 대한 봉사라는 주제들로 구성되는 노동관을 구성했으며, 이 노동관은 직업소명설이라고 불려진다. 종교개혁과 개신교 신학의 직업소명설은 기독교세계관의 차원에서는 문화명령이라는 주제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직업소명설은 사회윤리적으로는 중세 농노제라는 노동형식에서 부과되는 강제노동과 착취, 이것을 정당화하던 중세 스콜라 신학을 비판하면서, 노동주체들의 능동성과 노동의 의미 확보, 노동의 결과물을 노동주체가 향유하는 것의 정당성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공동체적 부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국가와 통치자들의 약자보호의무, 자본의 비인간적 이윤추구 금지추구 등의 긍정적 기여를 했다(『루터의 노동영성』, ; 『마르틴 루터의 신학사상과 윤리』, ; 『(마르틴 루터의) 대요리문답』, 향).

그러나 이후의 자본주의의 이론과 체제의 발전과 이념과 체제경쟁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이기고 최종승자로 행세하는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직업소명설로 대표되는 개신교 노동관은 분업과 임금노동이라는 노동형식에서 발생하는 비인간화와 소외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파괴에 침묵하거나, 이에 공모하여 정당화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것은 기독교세계관의 문화명령이 직접적인 노동관 제시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거나 기독교세계관의 역사에 있어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화란 개혁파 전통의 정치적 실천, 예를 들면 카이퍼의 “반혁명당” 등이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보인 비판적 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기독교세계관에 있어서는 문화명령에 관한 논의에서 문화명령의 토대로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됨을 논의하고, 문화물의 종말론적 보존을 논구하지만(『새로 쓴 기독교, 세계, 관』, ; 『일반은총과 문화적 산물』, ), 노동의 인간파괴 경향에서 나타나는 노동자 안의 하나님 형상의 파괴나 인류세의 기후위기에서 보이는 인간노동과 기술의 파괴적 자연적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거나 원론적이거나 피상적인 당위론 수준의 언급에서 그치고 만다. 기독교세계관이 현재 사회와 피조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사안에 통전적이고 책임적인 응답을 하고 있는가를 묻게하는 대목이다. 기독교세계관의 문화명령 논의가 보이는 순진함과 미숙함은 직업소명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비판점이다. 이와 같은 순진함과 미숙함은 질레의 표현을 따르면, ‘부르주아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으로(『사랑과 노동』, 119), 2002년 개신교 월간지 《복음과 상황》에서 벌어진 기독교세계관 존폐논쟁을 다시금 떠올려보게 한다.

볼프가 제안하는 성령론적 일의 신학에서 도출되는 성령론적 노동관은 기술의 발전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실업과 생태위기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창조 이해에 기초하고 있는 종교개혁자들의 직업소명설을 극복하고 종말 이해에 기초한 새로운 노동관으로 극복하려는 제안이다. 소득을

얻기위한 활동으로 극단적으로 축소된 노동을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종말을 현재적으로 선취하는 활동으로서 재구성한다. 성령론적 노동관에서 노동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향하면서, 현재 위기에 처한 동료 인간과 창조세계의 만물이 함께 번성(flourishing)하는 공동의 집을 짓는 활동이 된다. 성령론적 노동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볼프가 루터와 칼뱅의 노동관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작업은 기독교세계관의 문화명령에게도 “창조-타락-구속” 구도와 혹은 대표적 한국적 기독교세계관 이론가인 송인규의 경우 “창조-보전-완성” 구도와 관련하여 구속이나 완성과 관련하여 종말론적이고 성령론적인 강조가 더 이뤄져야 함을 역설한다고 생각한다. 문화명령에 보다 더 종말론적이고 성령론적인 강조점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것은 문화명령이 설명하는 노동에 희망과 사랑이라는 덕목이 강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더불어 급변하는 생산형식의 변동 속에서 개신교신학과 기독교세계관이 기존체제의 비인간성에 침묵하거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데올로기로서 복무하기 보다 사회변혁을 위한 공적 담론의 참여자가 되도록 스스로를 쇄신하도록 촉구하는 함의도 지닌다. 더불어 기독교세계관이 여러 기독교 노동관들이 다양한 형태로 제안해 온 노동의 성화적 기능에 대한 나름의 설명을 문화명령에 추가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주제어: 성령론, 새 창조, 노동, 문화명령, 직업소명설

## 참고문헌

- 박태우. “‘SPC 끼임사’ 119신고까지 10분 지체…능력대처 정황”. 《한겨레신문》. 2022, 10, 19.
- 김태훈, “생태전환 ‘노동’ 빠진 새 교육과정 총론 공청회…폭력에 욕설 난무 ‘아수라장’”, 《경향신문》 2022년 10월 9일자
- 손규태. 마르틴 루터의 신학사상과 윤리. 대한기독교서회. 2004.
- 오스 기니스. 소명. IVP. 2019.
- 마르틴 루터. 최주훈 역. 대교리문답. 복있는 사람. 2017.
- 도로테 질레. 사랑과 노동: 창조의 신학. 분도출판사. 2018.
- 송인규. 죄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한가. IVP. 1984.
- 송인규. 새로 쓴 기독교, 세계, 관. IVP. 2008.
- 송인규. 일반은총과 문화적 산물. 부흥과개혁사. 2012.
- 임성근. 루터의 노동영성: 중세 벽을 깨뜨린. 대학기독교인회출판부. 2017.

양권석. “노동의 종말과 미래 사이에 도사린 한 집착”. 발표여부미상원고.